

광주시교육청,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선정

금호평생교육관·송정다가치도서관 '친환경 공공건축물'로 탈바꿈 에너지 절감·신재생 설비 도입 지속 가능 평생학습공간 등 조성

광주 금호평생교육관과 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이 친환경 공공건축물로 거듭난다.

광주시교육청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모에 광주 금호평생교육관과 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이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광주시교육청은 국비 41억

50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참여했으며, 광주시교육청이 유일하게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사업은 오는 2026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노후화된 공공시설에 단열 보강, 고성능 창호 교체, 에너지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기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호평생교육관은 외벽 및 지붕 단열 보강, 노후 냉난방기 및 창호 교체, 옥상 태양광 설비 설치를 통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대 53.5%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

다.

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 역시 태양광 발전 설비와 폐열회수형 환기 시스템을 도입해 에너지 소요량을 기존 대비 40.9% 절감할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금호평생교육관과 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을 각각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공간과 다문화 교육 거점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정선광주광역시교육감은 "이번 사업은 노후 공공건축물의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독일·오스트리아에서 진행될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바퀴 문화·예술 분야(음악) 참가 학생들이 지난 8일 광주 염주 체육관 앞에서 출발 전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 음악 전공 고교생, 유럽 음악 뿌리 체험

시교육청 '세계 한 바퀴 문화 탐방' 8-16일 독일·오스트리아서 진행

광주지역 음악 전공 고등학생들이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방문해 유럽 정통 클래식 음악의 뿌리를 직접 체험하는 문화예술 탐방에 나선다.

광주시교육청은 8-16일 9일간, 광주 음악 전공 고등학생 16명을 대상으로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문화예술 탐방(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9일 밝혔다.

이번 탐방은 독일 베를린과 오스트리아

빈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음악대학·국립 빈 음악대학 견학 및 전공별 마스터클래스 △현지 한국인 예술인과의 만남 △음악 관련 박물관 탐방 △현지 학생들과의 진로 멘토링 △오페라·발레 공연 관람 △빈 오페라하우스 내 학생 연주회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학생들은 모차르트, 바흐, 슈만 등 세계적인 음악가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클래식 음악의 정수를 체험하고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는 계기를 마련한다.

특히, 바흐 뮤지엄·멘델스존·슈만 박물관

방문을 통해 작곡가들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깊이 있게 살펴보고 정통 유럽 음악에 대한 이해를 넓힐 예정이다.

탐방 일정 중에는 베를린 장벽과 브란덴부르크 문을 찾아 5·18민주화운동을 알리는 카드섹션과 K-POP 버스킹 공연도 펼쳐 세계 무대에서 광주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활동도 함께 한다.

광주예술고 박예찬 학생은 "세계적인 성악가 로만 트레켈 교수를 직접 만나고 조언을 받을 수 있어 매우 기대된다"며 "음악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진로를 정립할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정유철 기자

13일 문형배 전 재판관 초청 '헌법 토크콘서트' 개최

민주시민교육 실천의 장 마련

전라남도교육청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을 초청해 '헌법재판관-전남학생의회와 함께하는 민주시민 토크콘서트'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본질을 되새기고, 전남교육의 핵심 철학인 '의(義) 교육' 실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문형배 전 재판관은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그는 교육이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헌법적 가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다양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바탕으로 헌법과 교육의 연결 지점을 풀어낼 예정이다.

특히 문 전 재판관은 '정신(魂)·창조(創)·소통(通)'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강연에 이어 진행되는 토크콘서트는 전남학생의회가 직접 사회를 맡아, 학생들과 문 전 재판관이 자유롭게 헌법·민주주의·교육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전남교육청이 올해 중점 추진 중인 헌법교육 강화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교육청은 앞서 교원과 관리자 대상 헌법강연, 헌법 관련 자재 개발 자료 보급,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 권고 등 헌법 체험 교육을 실천해왔다.

도교육청은 이번 행사가 단순한 강연을 넘어 미래 세대가 주도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행사에는 도내 교육계 인사와 학생, 학부모 등 4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대중전남교육감은 "전남교육은 실천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하고,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교육을 통해 미래세대가 주도하는 건강한 민주사회 구축에 앞장설 것"이라며, "이번 토크콘서트가 전남 '의 교육'의 방향성을 더욱 뚜렷이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유철 기자



호남 최고 정론지 전남일보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DK 디케이 주식회사

봄, 공기의 새로운 정의
공간을 빛내는 선택

봄철 미세먼지와 꽃가루도
이제 걱정 없이,
깨끗한 공기를 집 안으로.

모든 순간을 더 건강하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